"환상의 세계로 떠날 준비됐나요"

제8회 광주비엔날레 D-50 지오니 감독 인터뷰

제8회 광주비엔날레(9월3~11월7일) 개막을 50여 일 앞두고 전시장 설계 공사가 시작되는 등 전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만인보'를 주제로 광주비엔날레전시 등지에서 펼쳐지는 이번 비엔날레에는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 현대미술의 아이콘인 제프쿤스 등 스타작가들이 대거 참여해 개막 전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일보는 15일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예술 총감독으로부터 이번 비엔날레의 준비 과정과 전망 등을 들어봤다.

-개막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준비 과정과 향후 일정을 소개해달라.

▲다음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공간 설계를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작품을 설치하게 된다. 20일에는 이데사 헨델스의 작품 '테디베어 컬렉션' 3000여 점 중 일부가 전시장에 첫 도착하는 등 작품 수송 작업도 순조롭다. 한 작가의 작품 수가 729개에 이르는 사진 연작과 128개의 조각 등 많은 수의 작품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다. 하지만 1905년부터 현재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아름답고 의미 있는 수많은 이미지를 보여주기에 굉장히 흥미롭고 아름다운 전시가 될 것이다.

-너무 많은 작품이 출품돼 또 다른 '이미지 과잉'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현대인은 인터넷을 통해 평균 5년 동안 40만장 가량의 이미지를 접하게 된다.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접하는 이미지는 예술과 다르다. 이번 전시는 이 같은 산업사회 속에서 파생되는 이미지와 예술 이미지가 서로 경쟁을 벌이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일상 생활 속의 이미지에는 삶이 담겨있지 않다. 광주비엔날레가 보여주게 될 이미지에는 과거와 현재의 삶이 담겨있다. 수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번 전시는 이미지 그 이상을 보여주는 일종의 '패밀리 앨범'이 될 것이다. 예술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알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최근 참여 작가로 광주지역 작가들이 추가로 선정되고, 양동시장을 전시공간으로 포함시켰는데.

▲우리가 아내를 선택할 때 기준은 '열정'이다. 강봉규·임남진·박태규·강선호·김용진·박성완·정다운씨 등이 지역 작가들의 작품은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 같은 감동을 준다. 임남진은 술집 풍경을, 박태규는 오래된 영화 속 이미지를, 그리고 강선호 등은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인 초상화를 선보이게 될 것이다.

제7회광주비엔날레가 대인시장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는 작가들이 참여한 예술의 장이었다. 이번 비엔날레가 선택한 양동시장은 상인과 시민 등 비전문가들이 보여주는 순수 미술이다.

우리는 이미지를 소비하는 동시에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다. 양동시장은 이미지의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뤄지는 장이다. 양동시장의 이미지처럼 소비하지만 만들어 내기도 하는 '이미지의 공존'을 보여줄 것이다.

또 작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획도 많다. 지역의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관람객들이 눈여겨 봐야할 작품이나 감상 포인트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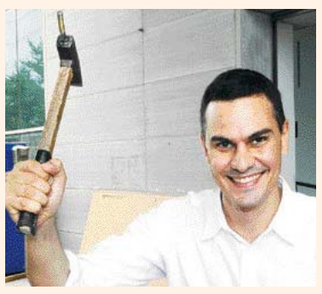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 고은 시집의 제목을 이번 전시의 주제로 차용하지만 그대로 베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아파트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삶을 알지 못하고 산다.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만인보'라는 주제에 담겨 있다.

'광주'를 위해 특별히 초대한 작품은 최병수씨가 고 이한열의 죽음을 소재로 그린 걸개그림이다. 또 중국의 국보급 조각품 등 세계 유명 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아름다운 걸작들도 놓치면 후회하는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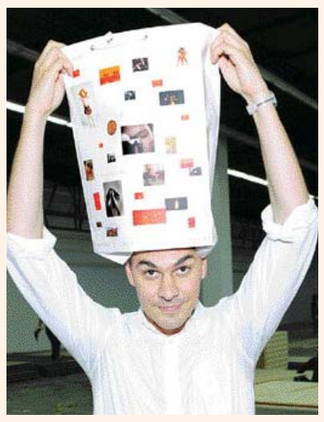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故 이한열 걸개그림 중국 국보 등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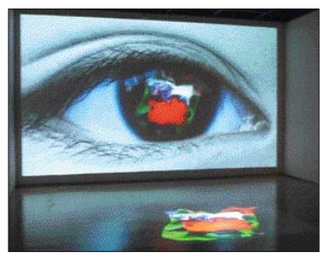


시끌벅적 문화 난장 행복한 전시될 것



전시작품들

'screen'



영상작품 'screen'

물흐르듯 추상과 구상을 넘나들다

'원색의 작가' 허정 개인전… 20~27일 은암미술관

모든 경계의 색은 명확한 것이 아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산자락과 붉게 저물어 가는 남녘 바다의 수평선이 그러하듯, 이쪽과 저쪽의 색을 조금씩 껴안고 있다. 때론, 명확하지 않은 그 색이 사물을 더욱 또렷하게 기억하게 하는 긴 잔상과 여운을 남긴다.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화려하면서도 강렬한 색을 선사하고 있는 서양화가 허정씨가 오는 20~27일 광주 은암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녀는 기존 캔버스 대신 아크릴판이나 알루미늄판을 재료로 한 새로운 형태의 회화 작품과 영상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사물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물 흐르듯 붓질을 하는 추상의 형태를 따르면서도, 화사한 색감의 잉어를 사실적으로 그려 넣어 묘한 울림을 만들어 냈다. 색의 사용이 자유로워 화폭에서는 금방이라도 물감을 흘러내릴 듯 생생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 커다란 눈을 영상에 담은 뒤 눈동자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듯 물감이 번지는 모습을 포착한 영상 작품도 긴 여운을 남긴다.

서양화가 우제길(우제길미술관 관장)씨는 "허씨의 작품은 원색의 찬란한 색채 분위기를 연출해 여린 꽃잎 하나가 꽃밭으로 변해가는 울림이 느껴지는 작품이다"고 평했다.

개천미술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허씨는 남부현대미술제, 정예작가 초대전, 2007국제현대미술제 초대전 등 단체전에 참가했다. 문의 062-231-529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역시! 하루키

'1Q84' 3권 출간 전 예약 판매만으로 베스트셀러 1위

일본 인기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장편소설 '1Q84'(문학동네 펴냄) 3권이 출간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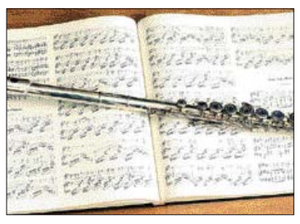
오는 28일 국내 정식 출간되는 '1Q84' 3권은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예약 판매만으로 베스트셀러 순위 1위에 올랐다. 인터넷 서점 예스24에서는 지난 9일 예약 판매에 들어가자마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밀어내고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현재 총 7000부 가량이 예약 접수됐다. 교보문고에서도 예약판매 1위를 기록중이다.

문학동네 측은 "일반적으로 시리즈물은 1권에 비해 후편의 판매 부수가 떨어지지만 '1Q84'는 1, 2권의 판매 부수가 큰 차이가 없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해 8~9월 국내에서 번역 출간된 '1Q84' 1, 2권은 최단 기간인 8개월여 만에 판매 부수가 총 100만 부를 넘어서는 등 지난해 하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다. '1Q84' 3권은 일본에서도 판매 전부터 증쇄에 들어가는 등 인기몰이를 했다. /연합뉴스

'천원의 행복' 이번엔 플루트

19일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이희영씨 비발디 등 연주



매월 세째 주 월요일 관객들을 찾아가는 '빛고을 천원의 행복'이 오는 19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동구 서석동 광주영상복합문화관에서 열린다.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공연의 주제는 '목관의 세계 #1-플루트'다. 주최측은 이번 음악회부터 클래식 저변 확대를 위해 특정 악기를 정한 후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악기 소개도 하는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플루트 음악을 들려줄 연주자는 플루티스트 이희영씨다. 현재 백예플루트 앙상블 아카데미 수석단원으로 활동하는 이씨는 이번 연주에서 비발디의 '피콜로협주곡 다장조 2악장', 도플러의 '헝가리 전원환상곡 작품 26',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삽입곡인 '문리버' 등을 들려준다. 또 피콜로, 알토 플루트, 베이스 플루트 등도 소개한다.

낙안읍성가야금병창보존회가 찬조출연한다. 문의 062-226-20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